

**Vol. 02**

2025.02.19.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조세심판사례
- III.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 241 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34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할당관세품목	HS CODE	적용기간	
당근(신선한 것)	0706.10-1000	25.1.1~25.2.28.	
무(신선한 것)	0706.90-1000		
매나옥 칩(건조한 것)	0714.10-2010	25.1.1~25.12.31	
커피(볶지 않은 것)	0901.11-0000		
	0901.12-0000		
옥수수(가공용)	1005.90-9000		
전분(감자로 만든 것)	1108.13-0000		
대두(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1201.90-1000		
사탕수수당	1701.91-0000		
	1701.99-0000		
코코아두(볶지 않은 것)	1801.00-1000		
토마토 페이스트	2002.90-1000		
오렌지주스(냉동한 것)	2009.11-0000		
파인애플주스(BX 20이하)	2009.41-0000		
파인애플주스(기타)	2009.49-0000		
혼합 주스(오렌지주스 주재료)	2009.90-1010		
인스턴트 커피	2101.11-1000		
커피 농축액 (기타)	2101.11-9000		
조주정	2207.10-1000		
기타 변성전분 (텍스트린과 가용성 전분 제외) *식품용	3505.10-4010		
	3505.10-5010		
	3505.10-9010		
석유	2709.00		25.1.1~25.6.30
역청유			
석유가스	2711.11-0000		
	2711.21-0000		
석유/역청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		
액화 프로판	2711.12-0000		
액화 부탄	2711.13-1000		

오렌지(신선한 것)	0805.10-0000	25.1.24~25.2.28
양배추(신선한 것)	0704.90-1000	25.1.24~25.4.30
배추(신선한 것)	0704.90-2000	
바나나(신선한 것)	0803.90-0000	25.1.24~25.6.30
파인애플(신선한 것)	0804.30-0000	
아보카도(신선한 것)	0804.40-0000	
망고(신선한 것)	0804.50-2000	
망고스틴(신선한 것)	0804.50-3000	
만다린(신선한 것)	0805.21-9000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	0805.40-0000	
두리안(신선한 것)	0810.60-0000	
감귤류 과실(유자 제외)	2008.30-9000	
당근(신선한 것)	0706.10-1000	25.3.1~25.4.30
무(신선한 것)	0706.90-1000	

## I. 법령 개정사항

###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 19359 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정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25.01.01.

## I. 법령 개정사항

###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 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 킬로그램에서 1 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0조)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변경)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변경)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변경)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 물질 등의 지정 (제20조)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3) 시행일

’25.01.01.

## I. 법령 개정사항

###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총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 킬로그램에서 1 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22 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8. 7.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을 1 톤에서 10 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위탁기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임·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신규화학물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25.01.01.

## II. 조세심판사례

### 1.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 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7.9.8. 홍콩 소재 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러시아산 석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홍콩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인 SGS S.A.(이하 “SGS 사”라 한다)가 발행한 분석보고서(이하 “선적지 분석보고서”라 한다)상 성분값을 기초로 미국재료협회(이하 “ASTM”이라 한다) 기준 Parr Formula 를 적용한 결과, 쟁점물품이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이하 “무수무광”이라 한다)에서의 휘발성 물질(Mineral Matter free Volatile Matter)의 함유량(이하 “MM free VM”이라 한다)이 전 중량의 14% 이하인 무연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 2701.11 호(개별소비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대구세관장은 2022.6.27.부터 2022.7.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석탄을 수입하면서 MM free VM 환산 오류로 인해 유연탄을 무연탄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MM free VM 이 14%를 초과하여 관세율표 제 2701.12 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유연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7.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2023.1.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에 따른 조건부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000 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0 조에 따라 사후 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았음.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3.1.13.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1.25. 가산세 000 원 중,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부족세액의 10%,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000 원의 면제신청은 승인하였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이자,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000 원의 면제신청은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과세관청에 문의한 바 없으며 수정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 환급은 사후 환급된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3) 결정일

2024.12.19. (조심 2024 관 0035)



## II.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 5601.22-0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 6307.90-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1.3.부터 2022.12.21.까지 수출신고번호 000 호 외 1,486 건으로 FILTER RODS(궐련형 담배 필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5601.22-0000 호로 수출신고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 13 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 만원당 간이정액환급금액 000 원~000 원)을 신청하여 2019.4.12.부터 2022.12.28.까지 관세 000 원을 환급받았음.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2.3.29.부터 2022.3.30.까지 쟁점물품을 A(주)에 양도하면서 관세환급특례법 제 12 조에 따른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고, A(주)는 위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 000 원을 환급받았음.

다. 처분청은 2022.5.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5 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청구법인도 2022.5.1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2 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음.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위 품목분류 질의 및 사전심사 신청 물품들(쟁점물품 중 7 개 제품)이 HSK 제 6307.90-9000 호(수출금액 1 만원당 간이정액환급금액 000 원)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1.13.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위 결정내용으로 회신하였음.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3.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000 원 합계 000 원을 징수·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거승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HSK 제 6307.90-9000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3) 결정일

2024.12.12. (조심 2024 관 0057)

## II. 조세심판사례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 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은 비특혜 대상으로 기재되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8.4.3.부터 2020.10.5.까지 독일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000 등 17 건(이하 “쟁점수출건”이라 한다)으로 자동차 변속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3 년 4 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비특혜 대상(Preference “X”)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24.3.15.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중 일부인 쟁점원산지신고서에만 특혜 비대상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원산지 신고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혜 대상 표기를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3) 결정일

2024.12.17. (조심 2024 관 0081)

## II. 조세심판사례

4.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8486.90-20 10 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 6909.12-0000 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1.10.부터 2019.4.9.까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5건으로 구리 합금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에 각각 텅스텐. 규소 무기화합물 재질의 타겟(Target)이 결합된 WSI Target Plate(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구리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COPPER Target Plate(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티타늄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TI Target Plate(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 및 코발트. 철. 붕소 등 합금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STEEL Target Plate(이하 “쟁점④물품”이라 하고, 쟁점①. ②. ③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각 기본관세율이 8%인 ‘텅스텐. 구리. 티타늄. 철강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8101.99-9000 호(이하 “제 8101 호”라 한다). 제 7419.80-9000 호(이하 “제 7419 호”라 한다). 제 8108.90-9000 호(이하 “제 8108 호”라 한다). 제 7326.90-9000 호(이하 “제 7326 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2024.1.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5.17. 부터 2024.6.3.까지 각 쟁점물품의 타겟 재질에 따라, 쟁점①물품은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제 6909.12-0000 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 6909 호”라 한다)로, 쟁점②. ③. ④물품은 각각 ‘구리. 티타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 7419 호. 제 8108 호. 제 7326 호로 회신(이하 각 “쟁점사전 회신”이라 한다)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2024.3.8.부터 2024.4.9.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486.90-2010 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 8486 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합계 000 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 원 총합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3.8., 2024.3.25. 및 2024.5.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1> 기재 ㄱ와 같이 2024.6.4. 및 2024.8.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 8486 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 (3) 결정일

2024.12.12. (조심 2024 관 0085)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스마트혁신 계속...불확실성·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수출·경제회복 총력지원
-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등 사회안전 수호
- 책임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관세행정 표준 선도 및 국제연대 확장

관세청(청장 고광호)은 1월 21일(화)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업무계획 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 ① 보호무역장벽 해소

○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 ①시장집중도 등 파생변수 결합, ②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 확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FTA-PASS)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26.1월 정식 시행)

##### ② 경제회복 총력 지원

○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 [스타(STAR) 전략] Start-up(신규부가가치 창출), Transportation(물류혁신), Autonomy(자율관리 확대), Reduction(비용·부담 경감)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 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2.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025 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 없이 수행한다.

### ③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건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능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하여 판별한다.

\* <sup>현행</sup>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 등 + <sup>추가</sup>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 ④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

○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3.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한다.

⑤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 회(2 월·7 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 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이 논의된다.

○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특송통관·엑스레이(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우리가 제시한 의제들이 표준으로 정착되면, 이미 우리 제도·시스템에 익숙한 수출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교역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광호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24년 K-뷰티 글로벌 수출, 100억 달러 돌파

- 2012년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긴 후, 12년 만에 100억 달러 돌파
- 식약처, 관련 업계와 함께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다.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액 : ('23) 84.6억 달러 →('24) 102억 달러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24년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역대 화장품 수출액 >

(단위 : 억달러)



\* 수출액 : ('12) 10.7억 달러→('15) 25.9억 달러→('18) 62.6억 달러→('21) 91.8억 달러→('24) 102억 달러

< 24년 화장품 월별 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1위, 미국 수출은 57% 늘어 >

'24년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국에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으로 진입했다.

\* ('21년) 17위 (0.4억 달러) → ('22년) 14위 (0.6억 달러) → ('23년) 12위 (0.9억 달러) → ('24년) 9위 (1.7억 달러)

중국은 '24년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하였으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對 중국 수출 비중은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 ('21년) 53.2% → ('22년) 45.4% → ('23년) 32.8% → ('24년) 24.5%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3년 대비 6.9억 달러(+57.0%)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폭이 국가 중 가장 컸다. 일본은 2.3억 달러 증가(+29.2%)하였으며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인체세정용품 증가폭이 가장 커 >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76.7억 달러(+12.8억 달러, +20.0%), 색조화장품 13.5억 달러(+3.0억 달러, +29.0%), 인체세정용품 4.7억 달러(+1.1억 달러, +30.7%) 순으로, 기초화장품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폭은 인체세정용품에서 가장 컸다.

대중국 수출은 유형별로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2.4억 달러(21.6억 달러→19.2억 달러, -11.0%)로 수출 감소액이 가장 컸다. 다만,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0.2억 달러(3억 달러→3.2억 달러, +5.7%)로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 거의 모든 유형별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23년 대비 5.6억 달러(8.4달러→14억 달러, +66.8%), 색조화장품 제품류 0.5억 달러(2.1억 달러→2.6억 달러, +25.8%), 인체세정용 제품류 0.5억 달러(0.4억 달러→0.9억 달러, +122.2%)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1.5억 달러(4.7억 달러→6.2억 달러, +30.7%), 색조화장품 제품류 0.7억 달러(2.3억 달러→3.0억 달러, +31.1%), 인체세정용 제품류 0.1억 달러(0.1억 달러→0.2억 달러, +88.1%)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23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1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5년에도 식약처는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외교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미국 등 안전성 평가에 대응하여 국제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 우리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지속 >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 인허가 규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www. helpcosmetic.or.kr](http://www.helpcosmetic.or.kr))에서 확인 가능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어 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OTC(Over the Counter)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FDA 초청 세미나(2회), 웨비나 교육(3회)을 진행하고 미 FDA 가이드라인 번역본(3건)을 제공하였다.

’25년에는 국내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 및 GMP 전문가 양성 집중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인 아시아 국가 간의 규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작년부턴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 협력 포럼’의 참여국을 확대하고,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할인행사 등 진행 >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업계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우리 화장품과 글로벌 고객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사랑을 받았던 우리 화장품 100개를 대상으로 1월 중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향후 다른 업체들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화장품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소비자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화장품과 관련되어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한 감동적 순간과 경험을 사진 또는 글로 참여하는 ▲K-뷰티 나의 이야기로 더욱 빛나다 이벤트  
▲K-뷰티 퀴즈 챌린지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슷폼 공모전을 실시한다.

\* 상세 행사 시기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http://www.kcia.or.kr))에 1월 중 공지 예정

아울러, '25.2월에는 정부, 산업계, 대한화장품협회가 함께 K-뷰티 수출 성과를 축하하고 화장품 수출에 기여한 주요 업체와 유공자 등을 격려하기 위한 기념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미(美) 신규 첨단 인공지능(AI) 수출통제 조치 발표

- 미(美),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발표
-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로부터 면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월),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 미국 수출통제 조치 주요내용 】

#### ① AI 칩 수출통제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영문명 순)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마카오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북한,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영문명 순)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이하 VEU) 제도를 개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AI 모델 기술 수출통제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 및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0^{26}$ 번 이상의 계산동작을 통해 훈련되는 AI 모델

### 【 국내 업계 영향 】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수입식품 민원 처리 현황,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으로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실시간 안내
- 민원 신청 현황, 수입식품 정보마루, FAQ 챗봇 기능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신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총 65개 수입식품 민원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수입식품 민원 처리 현황을 한글 40자 분량의 짧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아 상세한 처리 현황 확인이 어려웠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단계별 실시간 처리 현황을 1천자 분량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로 상세히 제공한다.

\* [예시] (종전) 접수(처리)번호, 검사결과, 제품명, 검사기관 →  
(개선) 접수(처리)번호, 검사결과, 제품명, 검사기관, 신청번호, 부적합 시 조치요령 등

해당 민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입식품 민원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은 종전과 같이 문자 메시지로 처리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 채팅방에서 과거 민원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 정보마루' 앱과 인공지능(AI) '수입식품 FAQ 챗봇'을 활용해 수입신고 요령 등 다양한 수입식품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부는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최대 7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민원인의 알권리는 더욱 강화된다.

\* 연간 발송비용('23년 기준) : (문자) 366만 건, 6천만 원 → (알림톡) 2천만원 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5. 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도입...기업들, 과태료 낼까 전전긍긍

관세청이 올해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외환검사를 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검사는 수출입 대금 결제, 자금 이체, 외환 매매 등 외환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기업이 외환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외환조사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외환검사는 불법거래 의심기업에 한정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기 검사대상은 정기 관세조사 기준인 수입금액 3000만달러 이상 기업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수입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이 외환거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크게 추징받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 발표에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 외환검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한 관세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외환검사나 조사하는 관세청 직원들은 베테랑인데, 그에 반해 기업들은 외환 관리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안내나 지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간 제3자 지급, 상계 등 외환거래 관련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외환검사를 받았다가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기업의 외환거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환거래법 관련 가이드나 설명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원산지검증이나 품목 분류 등 수출입 통관 안내 자료는 꾸준히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정기 외환검사가 행정제재가 아닌,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외환거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해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Tax watch 강지선 기자 zsun11@taxwatch.co.kr)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6. 관세청·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

- 서울(2.11.)을 시작으로 부산(3.4.), 인천(4.2.)까지 3회에 걸쳐 진행
- 전략물자 등 국제 수출통제 제도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오는 2월 4일까지 서울 설명회 참석 신청 마감, 부산과 인천은 추후 예정

관세청과 산업부는 2월 11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4.)과 인천(4.2.)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 < 전략물자 수출업계 설명회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자	[1차] 2.11.(화)	[2차] 3.4.(화) [예정]	[3차] 4.2.(수) [예정]
지역	서울	부산	인천
시간	14:00~15:30	14:00~15:30	14:00~15:30
장소	서울본부세관 대강당	부산본부세관 교육실	인천본부세관 대강당
주요 내용	· 국내외 무역안보 동향 · 전략물자 등 무허가 수출 사례 소개 ·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 유의사항 · 수출통제 제도개선 사항 소개 ·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